

I. Kant의 윤리관과 종교관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최 병 규
신대원 2

目 次

I. 序 論	1) 宗教의 必要性
1. 칸트의 생애	2) 靈魂문제의 要請
2. 칸트: 理性哲學의 出現배경	3) 神 存在의 要請
II. 本 論	4) 根本惡의 문제
1. 칸트의 倫理觀	5) 칸트 宗教觀의 限界
1) 人間觀	III. 結 論
2) 善意志	*참고문헌
2. 칸트의 宗教觀	

I. 序 論

칸트의 종교관을 논함에 있어서 그의 종교관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에 의하면 종교란 우리의 모든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수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신의 명령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태도 자체이다.¹⁾ 즉, 그의 윤리관 및 종교관은 기독교 보다는 오히려 법률과 의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그의 종교관을 살피기 전에 그의 윤리관을 살피고 다음에 그러한 윤리관에 부합한 그의 종교관을 살피려 한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에 대한 관은 결코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의 종교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기 보다는 인간들이 그들의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수락함으로써 칸트의 기대하는 바 윤리적인 삶을 살게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 지원용, "칸트의 인간관", 「사상계」(1953.4), p. 70.

이런 점에서 그가 훌륭하게 성취해 놓은 윤리관 및 종교관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비판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윤리관과 종교관을 다시금 재확인 해 보려 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1. 칸트의 생애

Immanuel Kant(1724~1804)는 1724년 4월 22일 동 프로이센의 수도 Königsberg에서 가난한 마구 제조업자의 가정에서 출생했으며, 특히 어릴 때 그는 경건한 Pietism의 가정이었고, 경건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의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 1740년, 대학에 입학하여 Wolfische Schule에 속한 Kuntzen(1719~1751)의 지도하에 철학, 수학, 물리학을 연구했다. 가정교사를 하는 등 1755년 동 대학에서 사강사가 된 후 15년간 논리, 형이상학, 물리, 수학, 윤리, 인류, 자연지리학 등을 강의했다. 1770년에 정교수가 되고, 그 이후 「순수이성비판」등을 비롯하여 다량의 저서를 내놓게 된다.²⁾ 1798년까지는 교수활동을 계속하고 1804년 사망했다. 독신으로 지냈으며, 그의 일상 생활은 시계와 같이 규칙적이었고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그의 사생활은 매우 수수하였다.³⁾

2. Kant: 理性哲學 出現배경

그가 생존한 시대는 역사상 계몽주의 시대였던 18세기이다.⁴⁾ 그는 계몽사상과 영국의 경험론, 그리고 대륙의 합리론의 영향력 속에서 그의 사상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합리론을 반대하던 J.J. Rousseau의 實踐의이고 윤리적인 계몽주의와 인간존중에 대한 생각, 그리고 合法測의인 自然觀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⁵⁾ 그는 비판철학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대륙합리론과 특히 C. Wolf의 철학 및 영국의 경험론의 영향하에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보다는 이 양자를 극복 止揚하여 새로운 비판철학을 정립하게 된다.⁶⁾ 아

- 2) 「순수이성비판」(1780),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 비판」(1790), 「도덕형이상학의 기초」(1785), 「단순한 이성의 한계내에서의 종교」(1793), 「도덕형이상학」(1797).
 - 3) W.D. Döring, Das Lebenswerk Immanuel Kant, 김용정 역, 칸트철학 이해의 길 (새발출판사, 1980), pp. 16~20.
 - 4) 그 이전의 근세의 그레가스 시대와 종교개혁시대였고, 아직도 과학적인 '이성'의 싹을 트기 시작했으나 미숙한 단계였고, 美的인 혹은 신비적인 범신론에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17C로 접어들면서부터 그 진척을 가져온 수학적 자연과학의 체계화로 인해 이제까지의 범신론적 입장으로 부터 力學的인 자연관이 된다.
 - 5) 金桂淑, 헤겔 哲學과 자유정신, (서울대: 1975), p. 92.
 - 6) 金鎔貞, 칸트 哲學研究, (서울: 유림사, 1978), p. 107.
- cf. Robert E.Reymond, Introductory Studies in Contemporary Theology, pp. 21~23.

울러 그는 소위 18세기 프랑스 유물론에 있어서 처럼, 宗教는 부정되어 무신론이 주장되고 도덕은 한갓 功利主義에 떨어진 시대적 상황속에서 독일적인 심정과 계몽적인 지성의 和解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의 과업이었다.⁷⁾

II. 本 論

1. Kant의 倫理觀

그의 윤리학의 중심 개념은 義務(pflcht)의 개념이다.⁸⁾ 그에게 있어서 한 行爲의 정당성은 그 結果에 있지 않고,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의존하며, 인간의 감성적 본성에서 오는 일체의 道德性에 연유된 쾌락주의 및 행복주의 윤리설을 부정했고, 선형적인 비판철학에서 先驗倫理學을 건축했다. 선형적 윤리학은 義務를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 행위의 도덕적 가치와 도덕성은 오직 「의무에의 적합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人間觀과 善意志만 논술하려 한다.⁹⁾

1) 人間觀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理性이 주어져서 理性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성과 아울러 感性이 주어져 있으며, 이성이 감성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 그 자신이 신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¹⁰⁾ 인간사이에는 '人格'이 존재한다. 그리고 도덕법칙이란 인간의 自己立法이며 동시에 目的 그 自體가 되며 결코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자기 목적으로 表象하고 이 표상을 전제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叡智界의 한 成員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 예지계는 모두 可想的 존재자의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共通하는

- 7) 손명현, "칸트", 思想桂(1957.9), pp. 174~175.
- 8) H.J. Störig,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林錫珍 역, 世界哲學史(下) (경북예관: 분도출판사, 1978), p. 170. "Kant가 pflcht, du erhabener, groBer Name...라고 찬미한 것은 경향성이 없거나 反하기 까지 하면서도 순수한 도덕적 強要에 따르게 한다는데 바로 도덕법의 숭고함이 드러난다."
- 9) 그의 윤리학은 Pflcht의 윤리학 혹은 Sollen의 윤리학이라 불리며, 그의 의무론은 Pflcht, guter wille, Achtung(존경), Neigung(경향성) 그리고 moralische Gesetz(도덕법칙) 등으로 나누어 진다.
- 10) 김기석, "칸트의 인간관", 思想桂(1953.4), p. 72.
cf. Ibid., "인간이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二重存在로 존재하기에 거기에는 인간의 비밀과 긍지와 한계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cf. 한단석, op.cit., p. 215. 이 도덕률은 실천적 법칙이며, 반드시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Menschheit를 그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¹¹⁾ Kant에 있어서 道德性과 人格性은 서로 一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는 人格性도 역시 意志가 自然的 傾向性(Neigung)으로 부터 독립하는데서 성립한다고 본다.¹²⁾ 그는, “도덕적 인격성은 도덕적 법칙 아래에 있는 理性的 存在者의 自由”라고 정의한다.¹³⁾ 그리고 그는 강조한다. 「너와 他人의 人格에 있어서 人間性을 항상 目的으로 취급해야지 단지 手段만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행위하라.」¹⁴⁾ 여기서 그는 인간의 존귀함을 역설한다. 모든 인간을 존경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의 인격성(persönlichkeit)을 참된 人格으로 취급하려 한 것이다. 人格은 그 자체가 目的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코 手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善意志(Guter Wille)

그에 의하면 각인은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자격을 지니며 道德의 소리에 귀 기울일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너의 意志의 격률이 언제나 同時に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行爲하라」고 한 그의 사상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理性能力의 完全性을 엿볼 수 있다. 순수이성의 의지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Kant의 해석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 과연 善이며 惡인가?」하는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¹⁵⁾ Kant는 이전의 철학자들과

11) 김성린, “Kant에 있어서의 理念의 實在性에 관한 研究”, (충남대 대학원: 1984), p. 39.

12) Kants gesammelte Schriften, XIX Nr. 6713. 김성린, p. 39에서 재인용.

13) Kant, K.d.p.V., S. 223.

14) Kant, Grundlegung, S. 79. “Handle So, dass du die Menschheit Sowohl in deiner Person eines jeden andern jeder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bloss als Mittel brauchst.” 전영갑, p. 412에서 재인용.

이 문제는 또한 도덕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너의 의지를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고 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f. Stephan Körner, Fundamental Questions of philosophy, p. 132. “A person who considers an action to be moral sincerely believes that every other person who find himself in the same situation should act in the same way. A moral law is a law which one imposes on everybody including oneself, and it is felt to be immoral to require everybody to obey it except oneself.”

15) W.O. Döring, op. cit., p. 131.

칸트이전의 도덕 철학자들은, 우리의 의지는 무엇에 제약되어 행위하며, 도덕적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시도했다.

*Locke……4개의 원리(이성, 신의의지, 일반의 행복, 自愛)

R.Cum berland……최선의 표상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봄.

Hung, Smith……동감, 동정이 도덕의 기초.

Wolf학과……인간의 상태를 완전케 하는 모든 것은 선.

는 다른 견해를 가진다. 최초로 도덕률이 있고, 우리는 이 도덕률을 모든 경험에서 독립적으로 따라서 선천적으로 우리의 이성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 이성의 명령에 의해 우리는 보편적 합법칙성의 형식을 받아들여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된 의지를 實現하는 것을 善이라고 이해한다.¹⁶⁾ Kant에 의하면, 實踐理性은 最高善(das höchste Gut)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이 das höchste라는 개념에는 最上, 完全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덕률에 대한 의무감에 이끌려 도덕률에 순종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도덕률과 완전히 일치하는 최상선이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감성계를 완전히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상선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선의 실현은 인간에게 부과되어 있는 실천적 과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한한 努力을 계속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인 불멸하는 영혼이 그것을 계속 경주해야 한다.¹⁷⁾ 그리고 善意志는 그것이 가져오는 성과나 결과 때문에 善한 것이 아니라, 다만 意志함으로써 즉 그 自體로서 善한 것이다.¹⁸⁾ 그래서 그는, 의무를 위해서 의무 때문에 行한 意志는 善意志이며, 경향성¹⁹⁾에서도 아니고 의무에 적합해서도 아닌 義務로부터 기인해서 行爲할 때에 善意志가 있다는 것이다.

2. Kant의 宗教觀

1) ‘宗教’의 必要性²⁰⁾

그의 종교관은 이성적 의무를 마치 신적인 명령의 형태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더 실천적인 기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실천이성비판」의 요청에

16) 그러나 Kant는 「Grundlegung zur Metaphisik der Sitten에서, “이 세계 어디에도 아니, 널리 이 세계 밖에도 선의지 이외에 무한으로 선으로써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생각되지 않는다”고 내포하고 있다.

cf. W.O. Döring, Ibid., p. 144.

최대선, op. cit., 1989, “최고선의 이상이란, 도덕적으로 最完全한 의지가 최고의 淨★과 결합하여 파생적 최고선의 원인이 되는 最高理性(神)의 이념을 의미한다.

17) 김성린, op. cit., p. 66.

18) I. Kant, Grundlegung, S. 29. 전영갑, p. 403에서 재인용.

19) 경향성(Neigung)이란, 慾求能力의 감각에 대한 依存性으로서, 가령 Legalität는 가지고 있어도 Molität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것은 傾向性에 치우친 것이며, 의무·선의지·존경과 같은 적극적인 개념에 대해서, 경향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20) 그의 종교관은 전통적 기독교의 그것과는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의 요구에 의해서 도입되는 형식을 취한다.

의하여 도입되는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 참된 것은 도덕적인 이성으로부터 유래되어야 하는 것이다.²¹⁾ 그는 그의 「Die Religion innerhalb der blossen Vernunft」에서 그의 종교관을 펴려하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의 도덕법은 종교와 상통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덕은 오히려 종교에 先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종교의 출발점에 주의 기울여야 한다. 그의 종교는 神의 계명(自然宗教)에 대한 '나의 의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무'(啓示된 종교)에 대한 신의 계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²²⁾ 그의 宗教가 가져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최고의 도덕생활, 즉 最高의 善(bonum consummatum)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에게 있어서 理性은 종교적 criterion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이것은 자연히 그의 종교개념의 支柱와 출발점에 이르는 合理的인 道德主義에 이르게 된다.²³⁾

2) '靈魂'문제의 要請

物自體는 감성을 촉발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悟性的의 限界개념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이성의 有限성을 나타내려는 이념으로 전개된다. 이 물자체체는 有限한 인간성의 상징이자 이성이 넘어서는 안 되는 限界概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理性은 超經驗的인 可想세계에 속하는 物自體, 즉 理念의 客觀的의 실재성을 이론적으로 확증하려 할 때, 불가피하게 純粹理性의 誤診推理에 빠지게 된다. 선형적 誤診推理는 "Ich denke"라는 判斷에서 출발하여 思惟主體로서의 自我, 즉 靈魂의 實體를 想定하고, 이것에 여러가지 선천적인 Category를 적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Ich denke라는 純粹統覺은 결코 경험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先天的인 것으로서 思惟에 있어서 논리적인 판단의 主體이지 결코 그 對象은 아니다. 그리하여 純粹自我, 즉 靈魂은 思惟의 主體로서 思惟될 뿐이며, 對象으로 인식될 수는 없는 성격의 것이다.²⁴⁾ 그래서 Kant는, "自我는 내용이 전혀 없는

21) Encyclopedia, op. cit., p. 222. "Knowledge of the supersensible, as kantthought; and although moral practice carries with it belief in god and a future life, whole meaning and force of that belief is to be found in a persistence in moral endeavor and a determination to repair moral shortcomings."

22) P. Carus, Kant's Prolegomena, p. 258.

cf. 최재선, p. 189. "파생된 최고선은 인간만이 그의 도덕성에 비례해서 누려야 할 행복의 상태를 지시한다."

cf. 한단석, pp. 224~226.

23) 지원용, "칸트의 宗教觀", 基督教思想(1964.3), p. 72.

24) 김성린, op. cit., p. 23. cf. 한단석, p. 249. "그러나, 칸트는 결코 영혼의 不滅과 神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空虛(Leer)한 표상이자 사유의 초월적 주체로서만 사유되어 질 수 있을 뿐, 그 主體를 떠나서는 어떤 개념도 가질 수 없다"고²⁵⁾ 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 주어²⁶⁾에 불과한 思惟主體를 대상적 주체로 誤認하고 여기에 先天的인 범주를 적용시킨 결과, 靈魂은 非空間的이기 때문에 非物質性(Immaterialität)을 가지며, 성질상 單純하기 때문에 不朽性(Incarnptibolität)을 가지며, 數的으로는 單一하기 때문에 自己同一體로서 人格性(personalität)을 가지며, 肉體와의 關係에서는 不死性을 갖게 된다.²⁷⁾ 그러나 논리적 의미에서 自我를 實體로 생각하고 거기에 위와 같은 개념들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에서 自我를 객관적인 實體로는 규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위의 개념들을 영혼에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Kant는 영혼의 실재성이 理論的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自我, 즉 靈魂의 의의는 實踐的인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自我는 형이상학적 思辨의 대상으로 파악될 것이 아니고,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서 파악되어 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그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는 自發性과 自由의 문제로 移行하게 되는 것이다.²⁸⁾ 결과적으로는, Kant의 영혼에 대한 觀은 계시적이 아닌, 思辨的의 產物로서 道德理性, 즉 理性宗教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 매개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도덕법칙의 존재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유의 객관적인 실재성을 實踐的으로 要請한 것이며, 人間에게 宿命的으로 존재하는 最高善의 개념을 매개로 하여 영혼의 불멸성과 신의 존재를 要請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3) '神存在'의 要請

이 문제 역시 영혼의 문제처럼,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고, 단순히 Practical Realm에 속하며, Kant는 神에 觀해서는 有神論者였다.²⁹⁾ Ding an sich로서의 神은 논리적 과정으로 달할 수 없으며, 神의 存在는 순수 실천이성의 假定이며, 도덕법은 종교, 곧 神의 명령으로서의 모든 의미인식과 통하고 있는 것이다.³⁰⁾ 그리고 그는 계속한다. 「우리가 아는 가정은 실제적인 가설 혹은 前提이다. 마치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전제인 것처럼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권리밖에 없다. 오히려 '나는 神이 存在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25) Kant, K.d.r.V., B.S. 404. 김성린, p. 24에서 재인용.

26) Ibid., S. 410~411.

27) Ibid., S. 402~403.

28) 김성린, op. cit., p. 24.

29) J.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p. 95.

30) H.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p. 188.

말할 권리 밖에 없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³¹⁾ 이렇게 해서 Kant는 모든 순수한 Rational Knowledge를 떨칠시키려 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그의 神觀을 모든 경험적인 지식의 불완전성에서 끌어오는 다분히 要請的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진다.³²⁾ 그러므로 그의 神觀과 神學에 대한 견지는 moral grounds 위에 근거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神은, 世界의 The Moral Author이기 때문에 道德 自體와 일치하는 것 같은 개념이다.³³⁾ 즉 그에게 있어서 最高의 파생적 善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근원적 善의 현실성, 즉 神의 存在의 要請이 되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最高善의 개념이 神의 存在를 요청함으로써 그 실재성이 실천적으로 보증된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명령은 최고선의 實現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의 근거가 되는 神의 意志를 표현으로 간주됨으로써 모든 道德的 義務를 神의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이 實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實踐이 신앙을 요구하게 된다. 즉 道德이 宗教를 요구하는 것이다. 神의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本性에 先天的으로 있는 道德的 義務가 곧 神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⁵⁾

31) R.Kroner, The primacy of Faith, p. 45.

32) 그에게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은 늘 단편적인 것이며, 이 理性的인 관념이 경험적인 세계와 경험적인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先驗的인 것'이라 부른다.

cf. 이보민, 기독교윤리의 체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 187. "그가 말하는 신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내의 신이며, 그의 철학이 필요로 하는 개념일 뿐이지 성경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cf. 한단석, op. cit., 251. "칸트는 결코 신에 의해서 도덕을 창조하려 하지 않았으며, 역으로 도덕에서 출발하여 신을 요청하였다."

33) B.A.G. Fuller, A History of Philosophy, p. 267.

34) Kant, K.d.p.V., S. 226 "folgich ist des Postulat der Möglichkeit des höchsten abgeleiteten Guts (der besten Welt) zugleich das Postulat der Wirklichkeit eines höchsten ursprünglichen guts, nämlich der Existenz Gottes. 김성린, p. 50에서 재인용.
cf. Gordon H. Clark, Three Types of Religious philosophy, p. 32.에서 그는 Kant의 신 이해에 대해 기술하기를, "The idea of God as well might then be a necessary concept without having a corresponding object. In fact, this is just what Kant believes. The Idea of God is a heuristic principle, a principle by which we conduct investigations, particularly investigations into morality. but this is far from establishing the objective reality of a corresponding entity"라고 비판하고 있다.

35) 김성린, op. cit., p. 50.

4) 根本惡의 문제³⁶⁾

그는 Die Religion 제 1장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범죄이전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명령의 불순종 등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이성의 표상과 완전히 일치된다고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순수이성의 파악과의 관계에 놓고 있으며 거기에서 '유추적 도식'을 찾아냄으로써 罪의 개념을 논술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여전히 도덕법칙의 경우처럼, 惡의 근원도 밝혀질 수는 없다고 한다. 惡에로의 주관적 근거를 '惡에로의 性癖(Hang)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행위의 준칙을 채용함에 있어서 의무의 동기보다 傾向性(Neigung, habitullen Begierde)의 동기를 우위에 두기 위해 理性的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뒤바꾸어 놓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人間意志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惡에로의 성벽은 준칙을 통해서만 선과 악으로 評價되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법으로 부터의 준칙의 脫線 可能性의 주관적 근거이다.³⁸⁾ 그리고 이 惡으로 부터의 성벽은 時間속의 모든 주관적 행동에 전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本來的(angeboren)인 것으로 제기된다.³⁹⁾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性質의 뿌리에 놓여 있고 인간의 本性속으로 흘러 들어온 점에서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의지작용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능력으로 풀 수 없는 본질적인 자유에 속해 있는 것이다.⁴⁰⁾ 그가 논하는 根本惡은 계획적인 것이고 또한 이성 그 자체에 相反하여 경향성의 동기에 호감을 두어 이성자체를 파괴하는 '理性的' 選擇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人間性 그 자체에 뿌리 박혀 있다고 말한 것이다.⁴¹⁾ 그리하여 자율과 악에로의 성벽의 평행선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대한 Kant 자신의 깊은 우

36) 즉 "罪"의 문제로서, 그는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제 1장에서 "善과 惡의 원리의 共在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다.

37) W.O. Döring, op. cit., p. 168.

38) 이정호, op. cit., p. 55.

39) The philosophy of Kant, ed. by Carl J. Friedrich, The modern Library, N.Y., The translation of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by Theodore M. Greene and Hoyt Hudson, p. 371. "To have a good or evil disposition as an in born natural constitution does not have mean that....., that it has not been acquired in time (that he has always been good, or evil, from his youth up.) (이하 Religion으로 표기).

40) Religion, p. 367. ".....It can lie only in a rule made by the will for the use of its freedom, that it, in a maxim.

41) Ibid., p. 376. "If, then, this propensity can be considered as belonging to mankind in general and hence as part of the character of the race, it may be called a natural propensity in man to evil."

려를 발견하게 되며, 악에로의 성벽이 어떤 우연적인 악한 준칙으로서 해명될 수 없는 자유의 소산이라는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當爲의 원리로서의 自律의 원리가 적극적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의 이율배반을 이루면서 도덕적 完全性에로의 길을 指向하는 Kant로 하여금 부단한 Dilemma에 빠지게 한다.⁴²⁾

5) Kant 宗教觀의 限界

상기한 바와 같이 Kant가 말하는 바, 理想을 向해서 노력하는 것이 개인의 Pflicht이지만, 그러나 人間本性안에는 根本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道德的 完成의 실천적 가능성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여기에서 그는 실천이성비판의 영역에서 이성의 한계내에서의 종교를 요청하는 것이다.

人間속에는 善에로의 소질 (Anlage)가 있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自發性으로 있다는 것은 긍정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惡에로의 Hang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惡에로의 성벽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對抗하여 계속적으로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³⁾ 끊임 없이 악에 대항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경향성의 한계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며,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 차차 德 (Tugend)을 획득하게 되어간다는 것이다. 즉 人間은 自發적으로 善해져 있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경향성을 저지하고, 根本惡에 저항해 감으로써 의무로서의 善을 實行해 가게 되며, 最高善에 이르게 되어간다고 보는 것이리라. 즉 allmähliche Reform에 의하여 Tugend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근본악의 제거의 방편으로서 종교, 특히 그가 말하는 기독교가 요청되는 것이거니와, Kant가 기독교 교리에서 찾아낸 이성적인 내용이란 이미 “實踐理性批判”속에서 다루어진 것이며, 실천이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⁴⁴⁾ 즉 그의 宗教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神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受諾하는 것이다.⁴⁵⁾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惡에로의 성벽인 根本惡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며, 人間理性은 보다 더 Tugend에로 발전해 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⁶⁾ 즉 Kant가 요구하는 宗教는 최고도덕의 生活인 最高의 善 (bonum consummatum)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추약되는 것이다.

42) 이정호, op. cit., p. 57.

43) cf. Religion, p. 403. 「To become free, “to be freed from bondage under the law of sin, to live for righteousness” — this is the highest prize he can win.」

44) 이규호, op. cit., p. 12.

45) 지원용, op. cit., p. 70.

46) Religion, p. 396. “Now it is our common duty as men to elevate ourselves to this ideal of moral perfection.”

III.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 그의 윤리관 및 종교관은 상호보조의 관계에 놓여 있다. 즉 道德的 完全性에로의 可能根據가 되는 神性的 문제에 있어서 그는 對神관계의 수직적인 성격보다는, 對人관계의 수평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같다.⁴⁷⁾ 그러므로 그의 倫理觀은 神을 爲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다분히 人間的이다. 왜냐하면 社會的인, 國家的인 윤리를 위하여 개인 자신의 본성적인 윤리적 지위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⁴⁸⁾ 아울러 그의 Die Religion 전체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는 善·惡·罪·하나님의 나라·가견적 교회 등은 곧장 윤리적 道德, 즉 義務性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윤리를 行하여 Ethical Commonwealth를 가져와야 한다는 思想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 물론 그의 종교관은 개인이 어떤 구실을 가지고 핑계치 못할 정도로 엄격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전반에 나타나는 종교는 윤리적 성격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기독교의 要素들—특히, 原罪—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왔다.⁴⁹⁾ 그의 倫理觀 및 宗教觀의 근거에는 人間理性의 극단적 樂觀性이 흐르고있다. 그의 理性은 道德性的의 사실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⁵⁰⁾ 오히려 기독교인은 Kant의 도덕적 의무성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行爲하는 것이다.⁵¹⁾ 그에게 있어서 종교의 요청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성의 부패’로부터 출발하기 보다는 이성의 요구에 그 필요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경윤리의 원동력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가능케 하는 것은 罪의 힘의 파괴이며,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47) 비록 그가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에서 기독교적인 전제로부터 논리를 전개시켜 도덕의 문제로 이끌어 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Die Religion의 저술은 수평적 요구를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8) Religion, p. 406. “Man ought to leave his ethical State of Nature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an ethical Commonwealth.”

49) W.D. Döring, op. cit., p. 171.

50) J. Douma, Christin Morals and Ethics, translation of Verat woord Handele, tr. by John P. Elliott and Andrew Pol., (ISBN 0-88756-024-5), p. 17. “He (Kant) did not end up with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the existence of God (as Postulates), and that was supposedly via the route of reason.……reason was, supposed to begin with the fact of morality and not with that of God’s revelation in the Bible.”

51) Ibid., p. 50. “Many are willing to admit that Christians have their own Special motivation for their acting Christians act out of faith in God. On account of this they are, for example, supposed to be better armed against ideologies than non-Christians.”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한다.⁵²⁾ John Calvin도 그의 Institutes에서 인간이 성의 허약성과 부패성을 지적한다.⁵³⁾

Kant가 理性의 지위를 고양시킨 것은 당대의 시대적 조류에 충격적인 선언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러나, Kant가 논한 바 “理性에 對한 낙천적 觀”은 성경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오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일상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聖靈”을 必要로 한다.⁵⁴⁾ 즉 “성령의 빛”이 없이는 모든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⁵⁵⁾ 부패타락한 인간이성은 “성령없이” 결코 善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⁵⁶⁾ 성경과 성령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 理性, 宗教, 倫理는 결코 그 진가를 가지지 못한다. 결코, Kant가 말하는 道德律이나 善意志, 人間理性이 人間의 판단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基督人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 안에서 그 표준을 가지는 것이다.⁵⁷⁾

물론, Kant도 “Ich musste also das wissen aufheben, umzum Glauben Platz zu bekommen”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변호할 의도로 출발하기는 했으나, ‘실천이성비판’의 요구의 단계인 종교의 영역에서조차 義務性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념으로 宗教를 論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비록 그가 ‘善·惡이 병존한다’⁵⁸⁾고 했으나, 人間理性을—重生(regeneration)한 理性과 重生하지 못한 理性을 구별없이—그 표준으로 본 것이었다. Kant는 계속하여, ‘부패한 心性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善意志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善”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⁵⁹⁾ 아울러 그의 사상에는 ‘성경의 윤리적 이상’의 개념이 단순히 An Ethical Commonwealth로 약화되어 있다.⁶⁰⁾ 여기에 대한 논박이

52) John Murrar, Principles of Conduct, 김남식 역, 「기독교윤리」, (성암사, 1978), p. 279.

5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wholly lost until we are regenerated.”

54) Ibid., p. 284.

55) Ibid., p. 280.

56) Ibid., p. 287.

57) C.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 83. “The Christian has his standard in the revealed will of God. This standard is absolute. he, the non-Christians, finds his standard in human experience.”

58) Religion, p. 368. “Man is (by nature) either morally good and morally evil.”

59) Ibid., p. 392.

60) Religion, p. 411. “An ethical commonwealth, then, in the form of a church, that is a mere representative of a city of God,……It could best of all be likened to that of a household or family under a common, though invisible, moral father,……so

Van Til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일상의 삶을, 우주는 쇠신되어 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때에 완전히 쇠신되어 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감과 아울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성경의 倫理的 理想을 그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⁶¹⁾ 그리고 Kant는 차라리 자연인이 그 理性的 思惟 및 活動을 通하여서, 수평적인 Ethical Commonwealth를 向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경적 입장”은, Kant가 말하는 Ethical Commonwealth를 이룩하기도 하되, 그것은 創造主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최종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Van Til은 非重生한 人間意識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다 들어 드릴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自然人은 그 自身の 道德的 意識을 道德行爲의 궁극적 표준 (the ultimate standard of moral action)으로 세우게 된다.⁶²⁾

以上에서 筆者는 Kant思想, 특히 倫理觀 및 宗教觀에 흐르는 “人間理性의 樂觀性”에 對한 基督敎의 昭明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Kant의 “理性觀”이 성경적 意味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重生된 理性만이 매일의 聖靈의 도우심下에 하나님의 요구, 즉 이웃에게는 道德的인 義務를,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순종과 봉사를 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 고 문 헌

<한서>

김석목 편, 思想과 批評(1권), 삼성출판사 1984.

김용정, 칸트哲學研究, 서울:유림사, 1978.

한단석, 칸트哲學思想의 理解, 서울:양명각, 1983.

최재선, 칸트의 純粹理性批判研究, 서울:박영사, 1983.

<역서>

J.Störig, H,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林錫珍 역, 「世界哲學史」(下), 경복:분도출판사, 1978.

Murrar, John, principle of Conduct, 김남식 역, 「基督敎倫理」, 부산:성암사, 1978.

enter with one another into a voluntary, Universal, and ending union of hearts.” cf. Bruce Aune는 그의 책, Kant's theory of Morals, p. 200에서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The duty to avoid carnal self-defilement” is a perfect ethical duty……” 라고 하면서 그 한계성을 지적해 주었다.

61) Van Til, op. cit., pp. 82~83.

62) Ibid., pp. 72~73. “(C) that the non-regenerate consciousness affirms that the moral verdict of any man must be tested by Scripture because of the sin of man.”

O.Döring, W, Das Lebenswerk I. Kant, 김용정 역, 「칸트철학 이해의 길」, 새발출판사, 1980.

<양서>

Aune, Burce, Kant's Theory of Moral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translated & indexed by ford Lewis Bathles, The Philadelphia press.

Clark, Gordon H., Three Types Religious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7.

Douma, J. Christian Morals and Ethics, translated by John P. Elliott and Andrew Pol. isbn 0-88756-024-5.

Edwards, Paul, The Encyclopidia of Philosophy (Vol. 4), N.Y.: Macmillan Pub. Co. Kant, Immanuel, Groundwork of the Metaphysis of Morals, tr. by H.J. Paton, N.Y.: Harper & Row. pub., 1964.

Knat, Immanuel,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tr. by M. Greene, Theodore and Hudson, Hoyt, of "The philosophy of Kant", ed. by J. Friedrich, Carl, N.Y.: Random House Inc., 1977.

Kröner, Stephan, fundamental Questions of Philosophy, Australia: Penguin Univ. Books, 1973 (reprinted).

Van Til, Cornelius,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55.

<논문>

김기석, "칸트의 인간관", 「사상계」, 1953. 4.

김성린, Kant에 있어서의 그의 實在性에 관한 研究, 충북대, 1984.

손명현, "칸트", 「사상계」, 1957. 9.

이규호, "칸트의 理性宗教", 「기독교사상」, 1963. 4.

이정호, Kant에 있어서의 自律의 문제와 根本惡, 서울대: 철학논구 제 9집, 1981.

전영갑, I. Kant의 義務論에 대한 考察, 부산산업대: 논문 제 4집 2권 (자연과학 예술편), 1983. 3.

지원용, "칸트의 宗教觀", 「기독교 사상」, 1964. 3.

비유 주석*

신 득 일
신학대학원 졸

복음서에는 비유라는 항목에 속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길거나 혹은 짧은 이야기를 복음서에 비유라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비유라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 어떤 페리코프(pericop)**가 역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유는 복음서에 있는 다른 문체와는 다르다. 즉 그것이 비록 일상적인 일이나 상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는 사실을 말하거나 설명하는 기사와는 다르게 종교적 진리에 관한 드러나 있는(uncovered) 교훈과도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로 한 자신의 말이 땅 위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독자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관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다.

주님의 교훈 가운데서 비유의 방대하고, 특이한 또 독자적인 위치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최근 백년 동안 많은 양의 문헌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상이한 근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의 양상이 발전되었고 비유 주석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때문에 비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1. 최근에 일어난 문제의 양상

비유의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이 몇가지 문제점이 지난 백년 동안에 대단

*이 글은 kampen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J. Van Bruggen의 책 *Het lexen van de bijbel*, (Kampen: J.H. kok, 1981) 가운데 있는 "Exegese van gelijkenissen"이란 소 논문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번역했다. 특별히 고재수(N.H.Gootjes)교수께서 감수해 주셨고 황창기 교수께서 지도하시는 "계시역사"과목 중에 이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셨다.

**책 전체에서 드러난 한 부분이란 뜻(역자주)